

## □ 마을 자원조사표

1. 마을 주소 신풍 ② 선학리 자연마을명 : 학동, 오선대, 의동 마을(3개)									
2. 대표자 성명: 박○주 직책: 이장 휴대폰: 010-****-****									
3. 마을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촌형 <input type="checkbox"/> 산촌형 <input type="checkbox"/> 어촌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									
4. 마을 인구									
- 주민등록상 • 주민: 167명 • 가구: 64세대 • 1인가구: 11세대									
- 마을 추산 • 주민: 110명 • 가구: 64세대 • 빈집: 5곳									
구분	총합	0~14	15~19	20~29	30~49	50~64	65~79	80이상	
총합	167	13	7	10	20	48	51	18	
남자	82	9	5	5	12	21	21	8	
여자	85	4	2	5	8	26	30	10	
※다수 성씨: 부안 임씨 70프로 이상									
5. 마을주민의 직업									
구분	농업 가구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수		어업 가구		기타		
인원수	30가구		개		가구 명		2가구 명		
6. 마을의 토지이용									
구분	총합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상업 지역	공장 지역	기타
면적 (㎡)	4199300	222000	214700	-	3762600	-	-	-	-
비율 (%)	100	5.2	5.1	-	89.6	-	-	-	-
7. 마을의 대중교통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경유 버스 노선 : 2개 노선 (700번 14회, 730번 3회)</li> <li>• 마을 버스 운행 횟수 : 없음</li> <li>• 특이사항 : 운행횟수는 타 마을에 비해 많지만 선학리 내부까진 들어가지 않고 도보 30여분 거리의 영정리 마새정류장에서 모두 하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마을 내 운송수단 : 없음</li> <li>• 특이사항 : 시내버스를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엔 도보로 봤을 때 거리가 너무 먼 편임. 2년 전에 행복택시 운영</li> </ul>								

### 8. 귀농·귀촌 인구 (최근10년 간)

귀농귀촌 가구 수		귀농귀촌 인구 수	
주민등록상	마을 추산	주민등록상	마을 추산
1가구	10가구	2명	15명

### 9.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가구 수	다문화가족 인구 수	다문화가족 자녀수(미성년)
2가구	8명	4명

### 10. 마을의 소득원

- 주요 생산 소득원 : 밤 50%, 벼 40%, 표고버섯 10% 등을 생산하고 있음.
- 자가 소비 생산물 : 쌀, 고추, 콩 등을 소규모 생산하고 있음.
- 제조·가공 시설: 없음.
- 도농 교류 내역 및 소득: 없음.
- 특이 사항: 밤 생산량이 50% 가량으로 많고, 그 다음이 벼 40% 정도, 콩과 표고버섯이 전체 생산량 10% 정도를 차지함.

### 11. 마을회관

신축년도	규모(평수)	사용빈도(월)	경로당 겸용 여부	토지 소유주	건축물 소유주
2019년도에 매매	30평	12월	겸용	마을소유	마을소유

※ 사용빈도가 적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마을회관 건물 자체에 방수가 안되어 내부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상태임. 2021년 재건축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 12. 마을 대표자

이 장	박○주		010-*****-*****		
구 분	성 명	회원수	반 명	자연마을 이름	반장명
노인회장	조○호	50명 이상	1반	안골	강○희
부녀회장	김○임	50명	2반	학동	김○태
청년회장	임○룡	15명	3반	육골	김○수
자게놀이 보존회	이○규	전 주민	4반	오선대	이○형
			5반	산막	손○배
(조사 당시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조사 일시 : 2020년 7월 8일</li> <li>• 마을 조사 장소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주민 이름(나이) :</li> </ul>		

## 13. 마을의 유래 및 연혁

오선(五仙)이 나란히 앉은 산봉(山峰)이 있어 선학(仙鶴)이라 하였고,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오선대(五仙垓)와 학동(鶴洞)에서 '선(仙)'자와 '학(鶴)'자를 따 '선학(仙鶴)'이 되었음. 조선 말기 공주군 신하면(新下面) 지역으로, 1914년 신하면 오선대·학동·산막리(山幕里)·의동(儀洞)의 일부가 통합되어 선학리라 하고, 1942년에 신평면 관할이 되었음.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신평면 선학리가 됨.

- 학동 : 학봉에 있는 임씨의 묘를 파는데 그 무덤 속에서 학이 날아왔다는 산 아래 마을을 학동이라고 부르고, 선학리에서 가장 큰 마을임.
- 오선대 : 마을 앞산에 다섯 봉우리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그 형체가 마치 다섯 신선이 앉아 있는 형국이라 해서 오선대라 부름.
- 버시니 : 선학리의 옛 이름으로, '버시니(보시니, 保身-)'라고도 함. 임진왜란 때 이곳에 몸을 피하면 안전했다고 하여 이곳에 몸을 피하면 안전하다 하여 버시니라고 부름. 이곳은 마을 입구에서 마을이 들여다 보이지 않고, 진입로를 따라 꽤 들어가야 산에 빙 둘러싸인 집들이 나오는 입지조건 덕분에 임진왜란 때 경주 이씨 이세침이 이곳으로 들어와 무사히 국난을 피할 수 있었고, 그 후 몸을 보신하는 마을이라는 뜻의 '버시니' 마을이 생겼다고 전함.
- 의동 :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마을.

#### 14. 마을 지도



#### 15. 마을 부지 현황

위치(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현황	비고
--------	----	-------	----	----	----

**정보비공개**

#### 16. 정주 여건

상수도	도시가스	광대역통합망 (유무선, 방송 및 인터넷)	하수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17. 사업 추진 내역

년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내용
2016	배수로 공사	20	신풍면	농업 배수로 공사
2017	배수로 정비	17	신풍면	농업 배수로 정비
2019	마을안길 정비공사	25	신풍면	마을 안길 도로 정비
2019	선학리 지게놀이 앰프 지원 (충청도 무형문화제)	2	충청남도청	도 무형문화제 앰프 지원
2020	농로 포장공사	40	신풍면	농로 포장 공사

### 18. 마을 규약·정관, 고유번호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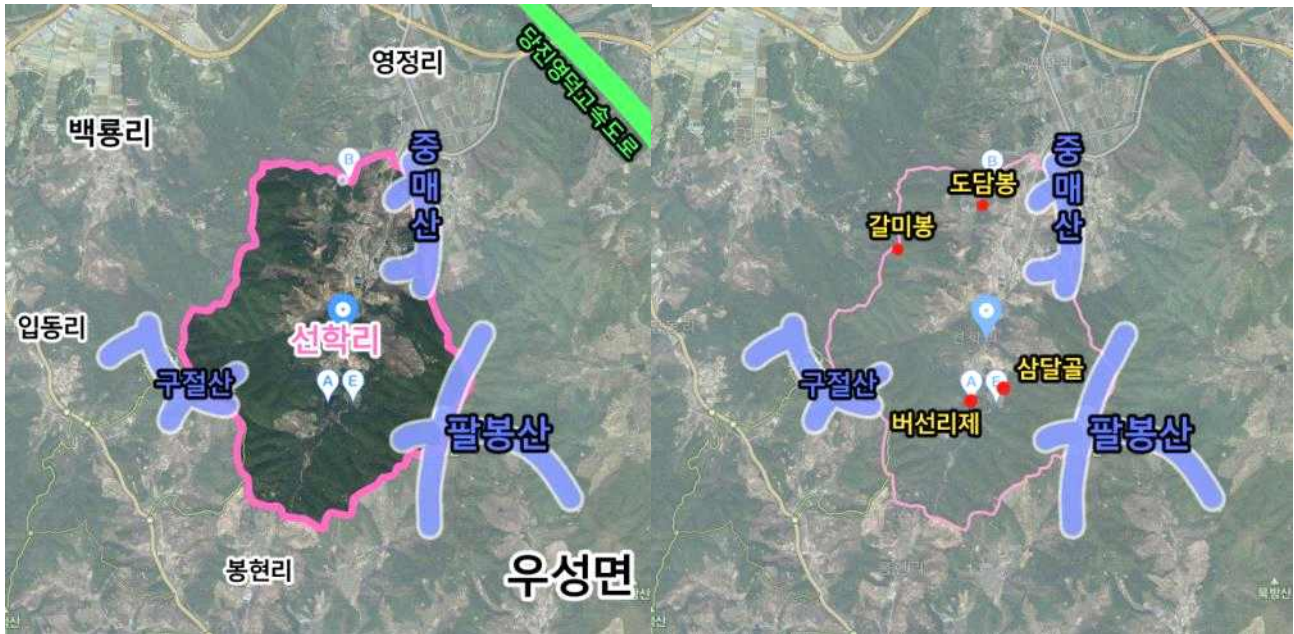
구분	마을회	영농조합	마을기업	기타
조직 유무 (조직명)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규약 유무	있음	없음		

### 19. 마을기금 운영 현황

**정보비공개**

## 20. 마을의 위치 및 생태·자연적 특징

- **마을 접근성:** 국도와 고속도로가 마을을 지나지 않지만 선학리길이 32번 국도와 연결되어 공주시내와 마곡사 방향, 예산시와 왕래가 편함. (차로 20여분)
- **마을 지형:** 선학리의 동부와 서부·남부에는 각각 해발 고도 400여m와 200~300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부에는 버선리제가 있음. 북부 및 중부로는 유구천(維鳩川)이 흘러 해발 고도 80여m에 충적 평야가 널려 있고, 남쪽 지역에는 선학저수지가 있음.
- **마을 형태:** 신평면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면적은 4.38km<sup>2</sup>이며, 2016년 3월 31일 현재 총 63세대에 138명(남 71명, 여 67명)의 주민이 살고 있음. 총 경지 면적은 43.98ha로 면 전체 면적의 3.56%를 차지하고 있음. 여러 소하천 주변은 벼농사 지대이며, 논에서는 벼 재배가, 산기슭에서는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천의 지류 연변 평야에 학동과 오선대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음.



▲선학리 지도(카카오맵)

▲선학리 마을 위치(카카오맵)

자연생태자원	선학저수지와 마을에 흐르는 유구천이 있어 수자원이 비교적 가짓수가 많고 풍부함. 급수 또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종종 낚시를 하기도 하고 민물새우, 피래미 등이 서식함.
특이사항	없음

## 21.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자원 분야

세부 내용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현재 상황, 관련 사진)



선학리  
지게놀이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는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는 농사일의 주축을 담당했던 청장년 사이에서 널리 전승되었던 놀이로, 두레의 소멸과 연탄 등 현대 연료의 보급으로 나뭇꾼들이 사라지면서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소멸되었다가 1993년 지게 놀이 채록 정리 시작하여 1999년에는 지게 놀이를 재구성 재현하여 공주 백제문화제에 출연하였음. 2000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에 출연하였으며, 전국민 속예술제에 출연해서는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함.

선학리 지게놀이 보존회는 2002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인 신풍면 선학리 지게놀이의 보존과 전승, 연구를 목적으로 창립되었고, 2004년 4월 10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음.

선학리 지게놀이는 지게를 지고 일을 다니면서 잠깐의 짬을 내어 즐기던 놀이로, 산으로 둘러싸인 선학리에서 지게는 사시사철 내려놓을 수 없는 농기구였고, 마을 어귀부터 마을 뒤쪽 고개까지 3Km나 농지가 길게 이어져 지게를 지고 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음. 이런 환경에서 노동의 도구를 유희감으로 삼아, 12가지 방식으로 지게놀이를 즐겼음.

농촌에서 지게는 쉬는 법이 없는데, 모나 수확한 곡식 등을 옮기고, 소에게 먹일 꼴을 베어 나를 때 사용하고, 농사일을 쉬는 추운 겨울철에는 땀감을 운반하는 데 쓰기 때문임. 이처럼 일 년 내내 지게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노는 사람이라는 뜻의 “지게 두두려 빵군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생겼음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는 지게상여놀이, 지게풍장, 지게걸음마, 작대기걸음마, 지게썰매, 지게장단노래, 지게지네밭놀이, 지게힘자랑, 지게호미끌기, 지게꽃나비, 작대기싸움, 지게작대기꼬누기 등으로 구성됨.

지게상여놀이는 지게로 상여나 요여腰輿를 형상화하여 실제 상여가 나가는 것처럼 상여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노는 놀이로, 예전에 청소년들이 꼴을 베러 다닐 때 심심풀이로 즐겨 했던 놀이인데, 지게상여놀이를 하면 마을에서 초상이 난다고 하여 어른들은 금기시했음.

지게풍장은 작대기와 철목(채)으로 풍물을 치면서 흥을 돋우는 놀이로, 이때 한 손에는 작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철목을 잡고 풍장을 치되, 지게의 양쪽 목발을 작대기와 철목으로 번갈아가면서 때려 장구를 치듯이 풍장 소리

를 냄. 지게풍장으로 치는 가락은 춤장단인 길나래비, 세마치, 세마치춤장단, 잣은마치 축원풍장, 두렁거리칠채 등이 있음. 이와 더불어 선학리에서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나팔 모양의 호드기를 만들어서 불거나 시누대로 호드기를 불기도 함. 또는 맨 입으로 악기 소리를 내어 지게풍장의 흥을 더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입으로 나발·뽕과리·징·북·장구 소리를 내는 것을 '입풍장'이라고 함. 지게걸음마는 지게 위에 올라가서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하듯이 걷는 놀이로, 운동 신경이 좋고 균형 감각이 빼어나야 함.

작대기걸음마는 작대기 두 개를 양손에 쥐고 발받침 위에 올라서서 걷는 놀이로, 도중에 작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멀리 가거나 상대보다 정해진 지점에 빨리 도달하는 사람이 이김.

지게썰매는 땀나무를 다녔던 겨울철에 청소년들이 얼음판 위에서 하던 놀이로, 놀이의 방법은 자신의 지게등받이를 양손으로 쥐고 달려가다가 지게 위에 올라 앉아 누가 멀리 미끄러지는가를 겨루거나,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지게에 올라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지게를 끌고 가며 얼음을 지침. 이렇게 지게를 가지고 얼음판을 달려가서 정해진 구간을 어느 편이 빨리 도달하는가를 겨루기도 함.

지게장단노래는 지게목발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노는 놀이로, 이때 특별히 정해진 가락이나 노래는 없고 단지 분위기에 맞게 즉흥적으로 지게목발장단을 두드리며 흥을 돋움. 혹은 지게 멜빵을 이용하여 장구를 메듯이 지게를 옆으로 메고 놀거나 다른 사람의 지게를 두드리며 신명을 더하기도 함. 지게지네발놀이는 지게타기와 지게지네발놀이로 구분되는데, 지게타기는 두 편으로 편을 나누어 20개 이상의 지게를 마치 지네발처럼 일렬로 길게 세운 다음 각각 한 사람이 지게 위에 올라 버들가지(짐을 엮는 부분)를 발로 디디며 앞으로 나아감. 이때 다른 사람의 몸이나 지게를 손으로 잡지 않아야 하며 맨 끝에 먼저 도달한 편이 이김. 승부가 나면 진 편은 지게를 이긴 편이 지게에 잇대어 세우고 한 사람이 지게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버들가지 끝을 밟고 앞으로 나아감. 지게를 잡고 있는 양쪽 편은 함께 나무꾼 노래나 창부타령, 아리랑 등을 부르며 노는데, 이것이 이른바 지게지네발놀이임.

지게힘자랑은 지게에 세 명을 태운 다음 장정이 짊어지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임. 처음에는 몸무게가 가벼운 세 사람이 지게에 오르고, 이를 통과하면 점점 무거운 사람을 태워 힘겨루기를 함. 선학리에서는 동네 장사를 뽑을 때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들이 두레에 처음 가입할 때 신입례로 지게힘자랑을 하기도 했음.

지게호미끌기는 두레를 마무리하는 호미씻기의 일종으로, 호미로 논을 매는 힘든 김매기가 끝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호미를 씻어 지게에 맨 새끼줄에 줄에 걸. 이는 한 해의 농사가 끝났으니 더 이상 호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목메어 죽인다는 해학적인 뜻을 담고 있음. 호미가 달린 지게를 장정이 지고 풍물패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 아이들이 끌려가는 호미를 발로 밟아서 지게를 짊어진 어른을 골탕을 먹임.

지게꽃나비에서 꽃나비란 본래 장정의 어깨 위에 여장을 한 소년을 태우고 품물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는 것을 말함. 지게꽃나비는 이를 본뜬 것으로, 장정 세 명이 여장을 한 아이를 지게에 태우고 꽃나비와 같이 춤을 추게 함. 지게꽃나비는 과거 두레의 김매기를 마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품삯을 결산하는 두레먹이를 할 때 널리 성행했던 놀이임.

작대기싸움은 비단 선학리뿐만 아니라 공주시 일원에서 널리 행해졌던 놀이로, 작대기를 세워 놓고 다른 작대기로 특정한 부분을 때려서 부러뜨리거나 지게를 받치는 갈고쟁이(Y자로 갈라진 부분)을 쳐서 찢는 놀이임. 보통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작대기를 세워 놓으면 이긴 사람이 먼저 상대의 작대기를 쳐서 공격을 함

지게·작대기꼬누기는 지게나 작대기를 손바닥 또는 한 손가락에 수직으로 세우고 균형을 잡아 쓰러지지 않게 하는 놀이로, 누가 오래 버티는가를 겨루거나 기능이 능숙해지면 지게나 작대기를 세운 채 느린 속도로 달리기도 함.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는 충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의 지게놀이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가령 지게풍장의 경우 타 지역은 세마치 기본 가락만을 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선학리에서는 길굿나비, 물풍덩이가락, 잣은마치 등과 더불어 입으로 풍장 소리를 내는 입풍장이 더해지는 것이 특징임. 특히 소나무 껍질을 벗겨 나발처럼 말아 호드기를 붙여서 흥을 더하는 모습은 선학리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지게지네발놀이, 지게꽃나비, 지게호미끌기 등은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특징임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

지게 상여놀이는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흉내 낸 젊은 남성들의 놀이로, 이 놀이를 하면 마을에 초상이 난다고 해서 금기시되기도 했음. 지게 여러 개를 이어서 상여를 만든 후 위에 흰색 흙저고리를 덮고, 상주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칩 줄기로 묶어 상주 모자를 만들어 쓰고, 지게 상여를 메고 느린 곳거리에 맞춰 행진함

지게 지네발놀이 중 지게타기는 마른가리 팀과 물가리 팀으로 나뉘, 팀별로 지게를 잡고 양편으로 길게 늘어선데, 지게가 늘어선 모습이 지네발 같이 생겼다고 해서 지네발놀이란 이름이 붙었음.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지게 위로 올라가 지게를 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미 밟힌 지게는 다시 제일 앞으로 옮겨 지네발을 잇는 방법으로, 목표지점에 먼저 도달한 팀이 이김

지네발놀이는 지게타기에서 이긴 편은 지게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계속 전진하고, 진 팀도 지게를 들고나와 지네발을 함께 잇는 형식으로 진행됨



지게 꽃나비는 지게 한 개를 장정 세 명이 어깨에 메고, 지게 위에 10대 중후

	<p>반의 남자아이를 여자처럼 분장시켜 태우는데, 이 아이를 '꽃나비'라 함(요즘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각각 뽑아 무동으로 세움).</p> <p>풍장 가락에 맞춰 지계꾼들이 행진하면 꽃나비가 춤을 추는 이 놀이는 공주 전역에서 벌이던 유희로, 보통은 장정 한 명이 꽃나비 한 명을 태우나 선학리는 농지가 길게 뻗어 있어 이동 거리가 긴 탓에 다른 지역과 달리 세 명이 지계를 메고, 태움.</p> <p>(출처 지역N문화 공주 선학리 지계놀이 <a href="https://ncms.nculture.org/folkplay/story/4462">https://ncms.nculture.org/folkplay/story/4462</a>)</p>
<p>풍장</p>	<p>충청남도 공주시 일원에서 농악에 쓰는 풍물을 민속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풍장을 치는 날은 마을에 따라 다름.</p> <p>선학리는 '여름 두레 먹는 날' (7월 1~15일 중 하루)과 장정의 어깨 위에 여장 남자를 세우고 노는 놀이판인 '꽃나비 마당' 등이 있음.</p>
<p>벼슬한 농기</p>	<p>충청남도 공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품격을 매긴 두레 농기. 선학리에는 해방 후 수결을 받은 충청남도지사의 수결 농기가 있음.</p>
<p>가마소리</p>	<p>충청남도 공주 지역에서 혼례 때 신부를 싣고 가는 가마꾼들이 부른 민요로, 우리나라 혼례 문화의 특성상 전국에 고루 분포했을 이 소리는 공주에서만 전승됨. 특히 손으로 들거나 개인이 어깨로 메는 관료들의 사인교와 달리 일의 작업 형식이 달랐던 전형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임.</p> <p>선학리 이외에도 우성면 어천리, 봉현리, 한천리, 의당면 도신리, 청룡리, 두만리, 울정리 등에서도 가마소리에 관한 추가 채록 및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음.</p>
<p>신세타령</p>	<p>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선학리에 전해지는 서민들이 부르던 푸념조 민요로, 공주시 일원에는 '신세타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노래가 전함.</p> <p>남자들이 부르는 「신세타령」은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로 시작되는 반면, 여인들이 부르는 「신세타령」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답답함을 노래하는 형태였음.</p> <p>현재 선학리에 살고 있는 김인수 어르신이 부를 수 있음.</p>
<p>산신제와 노신제</p>	<div data-bbox="308 1641 730 1955" data-label="Image"> </div> <p>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선학리에서 음력 정월 보름 전날과 보름날에 지내는 마을 제사.</p> <p>지금도 공주시 신평면 선학리에서 치러지는 산신제와 노신제는 다른 동제(洞祭)가 지나는 복합적인 기능을 아우르고 있음.</p> <p>산촌마을이라는 지형적 고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산신제와 장승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일체감을 도모하는데 기여함.</p>

<p>벽수</p>		<p>신평면 선학리 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으며 서방 백제장군과 동방청제 장군이 다리를 두고 좌우로 세워져 있음. 이전에는 나무벽수로 세워져 있었는데 관리상의 이유로 1972년 마을사람이 희사한 돈으로 돌장승을 세우고 2000년도에 다시 다른 석장승으로 세웠다고 함. 또 두 장군을 금줄로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음.</p>
<p>꼬대각시</p>	<p>공주에서 행해진 여자 아이들의 안방놀이로 꼬대각시는 신내림을 활용하는 무속적 성격을 띄고 있어 어른들은 금기시한 놀이임. 평소에 하지 못하였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녀들은 즐거워했으나 신내림을 풀지 못하면 신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하여 어른들은 꼬대각시 놀이를 금기시하였음.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 몰래 숨어서 꼬대각시 놀이를 했다 전해지고 선학리에는 이 원형을 기억하는 어르신이 다수 있음.</p> <p>충청남도 지방에서는 주문 대신 여러 사람이 합창으로, “꼬대 꼬대 꼬대각시/한살 먹어 어멈죽어/두살 먹어 아버지 죽어/.....”로 시작되는 「꼭두각시노래」를 부르기도 함. 이 놀이는 무당의 신대 내리는 절차를 흉내낸 것으로 일종의 최면술적 성격을 지님.</p> <p>아이들 중에서 가위바위보로 한 명의 술래를 정하고, 술래를 방 중앙에 앉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술래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후 술래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음. 나머지 아이들도 두 손을 모으고 술래에게 신이 내릴 때까지 주술적인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는데, 신이 내린 술래가 춤을 추면 아이들도 술래를 따라서 흥내를 내며 춤을 춤</p> <p>술래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은데 “꼬대각시 꼬대각시 나이는 열여섯/ 이름은 꼬맹이 생일은 사월 초파일/ 생일도 좋구 이름도 좋으니/ 춤을 추며 놀아보자” 공주 지역의 80~90% 마을에서는 이 노래를 불렀으며 ‘이름은 꼬맹이’ 부분을 ‘이름은 춘향이’로 부르는 마을도 많았음.</p> <p>또 다른 노래는 「춘향각시」로, “춘향각시 춘향각시 보리 묶는 봄날에 무엇을 하나/ 춘향각시 춘향각시 나이는 열여섯 생일은 사월 초파일/ 좋은 세월 만났으니 춤을 추며 놀아보자” 「춘향각시」 유형의 노랫말은 변형이 많아 이처럼 부르는 마을은 반포면 상신리 외 몇몇 마을 뿐임.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변형된 노랫말이 전하나 기본적인 구성은 위의 2가지 유형 뿐임. 박자는 2분 4박이며 가락은 주술을 외는 형태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중얼거리듯이 부름.</p> <p>꼬대각시는 1970년대 이후 단절되었으나 공주시 신평면 평소리·선학리에는 아직도 원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1987년 신평면 평소리에서 채록되어 복원되었고, 1997년 제2회 공주아시아 1인극제에서 공연된 연극 「고마냥자의 꿈」과 2005년 우금치예술제에서 공연된 「녹두장군 오셨네」에서 꼬대각시 놀이가 공연되었음. (출처 디지털공주문화대전 꼬대각시편)</p>	

<p>천주교 교우촌</p>	<p>충청남도 공주 지역에서 19세기 천주교 박해기에 천주교도들이 비밀리에 은거해 살던 마을임.</p> <p>프랑스 선교사 두세(Doucet, 丁加彌)가 1881년부터 충청도 지역을 순회했으며, 두세가 공주읍으로 진출하여 공주공소를 결정한 1887~1888년을 전후하여 공주 지역에는 요골공소·서재공소·공주공소를 비롯하여 현 신평면 선학리에 있었던 버시니, 현 사곡면 구계리에 있었던 산막골, 사기점골, 현 유구읍 명곡리에 있었던 만악골, 현 정안면 내촌리에 있었던 안말, 운암산, 현 탄천면 운암리에 있었던 삼배실 등에서도 공소가 설립됨.</p> <p>과거 선학리에는 버시니 교우촌이 있었으나 병인박해 때 대부분 폐허가 되었다고 함. (출처 디지털공주문화대전 천주교편)</p>
<p>특이사항</p>	

22. 마을의 경제자원

이름	세부 내용(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현재 상황, 관련 사진)	
벼	선학리 전체 수입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광벼로 벼농사를 하고 있음.	
밤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 안쪽에 밤나무 군락이 조성되어 있음.	
황토방 펜션		마을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계곡의 상류에 위치해 1급수 물놀이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방이 3개로 5명에서 20명까지 숙박이 가능함.
표고버섯		일부 가구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임.
특이사항	연 2회 정도 마을 주민 전체가 지게놀이로 타 지역이나 백제 문화재에 초청을 받는데 따로 수익은 창출되지 않음	

23. 마을의 공동체자원 (주 이용시설 위치확인)

자원 분야	세부설명 및 위치
공동체 행사	<p>산신제와 노신제라 불리는 마을 공동 제사가 있으며, 노신제가 있는 날에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함</p> <p>4월 말 ~ 5월초에 마을 광장에 모여서 점심을 먹고 인사를 초청해 마을 행사를 함.</p> <p>또 산촌마을인 특성 덕에 옛부터 지게를 많이 사용했고 지게의 특성을 이용해 지게를 졌을 때의 노고를 놀이 비슷하게 풀어내어 노는 지게놀이 등이 있음</p>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현황	<p>노인분들을 위해 건강체조, 노래교실, 풍물교실 등 매주 1번 비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현재는 코로나로 무기한 연기)</p>
마을조직 활동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회 - 비정기적으로 모여 마을안길 꽃밭을 가꾸고 정리활동</li> <li>• 청년회 - 명절과 연휴 때에 마을 전체에 예초작업을 실시함.</li> </ul>
인적 자원 (명인, 유명인 등)	없음
자매결연 단체/기업/마을명	없음
특이사항	없음

24. 마을의 시설

이름	사진	세부설명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농산물 간이 집하장		<p>마을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마을 공동으로 사용함.</p>
마을회관		<p>마을회관 2층에 컨테이너를 올려 증축했는데 곰팡이가 슬어 내년에 재건축 예정임.</p>
지게놀이 자료관		<p>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27호 공주신학리지게 놀이자료관으로, 마을회관의 맞은 편에 위치하며 안쪽에 여러 모양의 지게가 있음.</p>
보광사		<p>공주시 신평면 팔봉산길 98 마을 주민들에 의해 1980년도에 지어졌으며 마을의 끝 부근에 있는 절로, 절 들어가기 직전에 굴바위가 있음.</p>
부안 임씨		<p>선학리에 부안 임씨 동족촌이 있지만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부안 임씨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 또한 도맡아 하고 있음.</p>
특이사항	없음	

25. 기타

구분	세부 내용
<p>마을의 문제점과 건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잦은 장마와 폭우로 하수도 시설 재정비가 필요함.</li> <li>• 마을회관(경로당 겸용) 건물이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지 않아, 2021년 재건축할 예정.</li> <li>• 마을 안길의 재포장이 필요함.</li> <li>• 현재 설치 중인 하나 광역 상수도 보급이 마을 전체에 필요함.</li> </ul>
<p>마을에서 원하는 사업과 건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학리에 유명한 지게놀이의 전수자가 현재 돌아가셨기에 연수생만 몇 분 남아계신 상황임. 이에 마을 주민들은 지게놀이를 전수하기 위해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지게놀이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상황임.</li> <li>• 지게놀이를 공연하기 위해 타 지역 초청에 응하면 마을 주민분들은 별도로 공연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게놀이 보존을 위해 타 지역에 공연을 나갈 경우 대절하는 버스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li> </ul>

□ 자원 현황 및 활동 사진(1)



자원 마을 입구 돌표지석



자원 마을 입구에 있는 지게 모양 구조물



자원 보광사 앞의 작은 굴



자원 마을에 위치한 둑방



자원 부안임씨 제단 앞 비석



자원 지게놀이 자료관 앞 비석  
마을에서 말비석이라고 불리운다.

□ 자원 현황 및 활동 사진(2)



자원 마을회관 옆 공터, 주차장이나 기타 행사 있을 때 활용



자원 지게놀이 자료관 앞에 있는 비석



자원 선학리 버스정류장 모습



자원 마을 입구에 있는 폐쇄된 주유소



자원 공터 옆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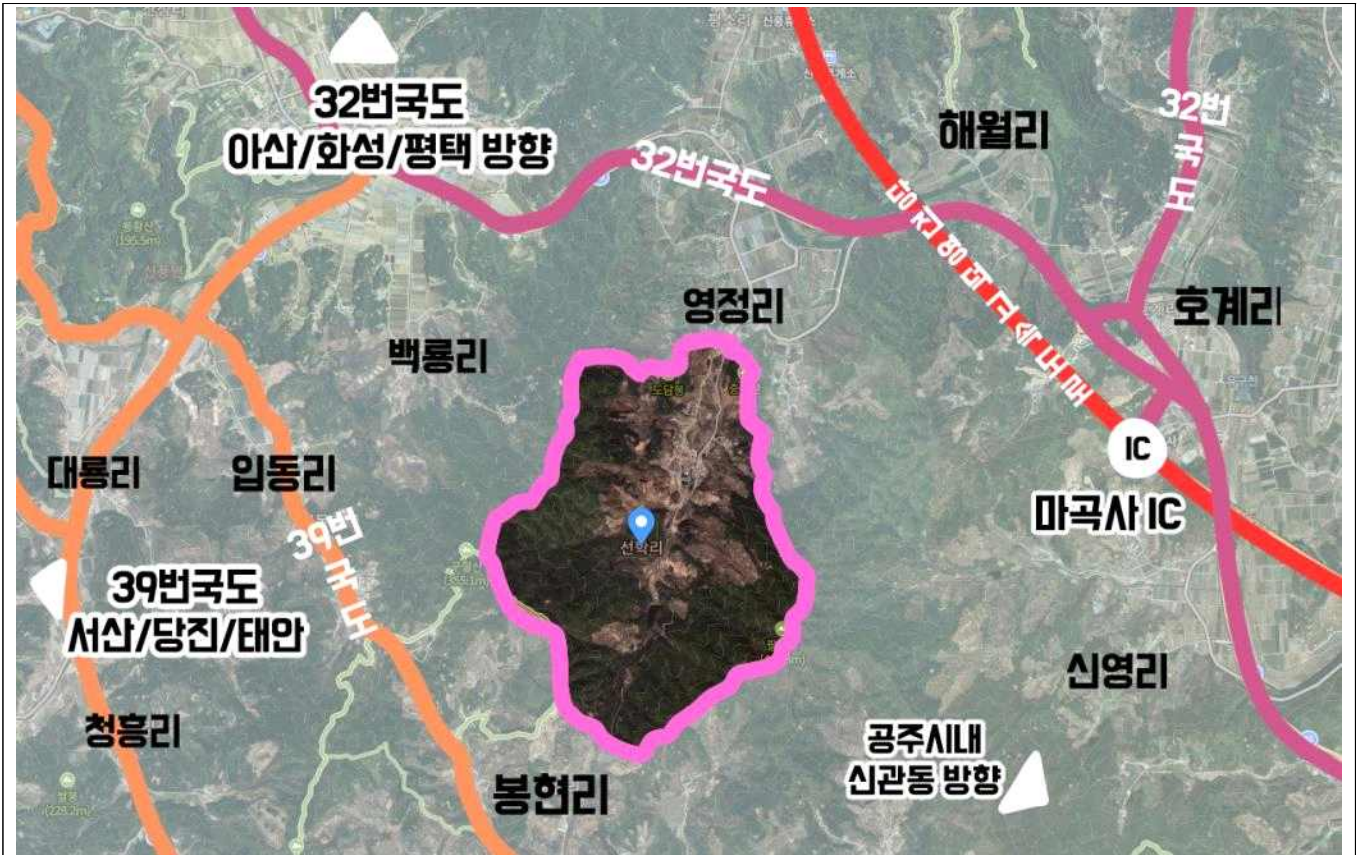


자원 지게놀이 자료관 앞의 큰 나무

□ 자원 현황 및 활동 사진(3)

	
<p>자원 마을회관 앞 다리의 모습</p>	<p>자원 선학리 운동기구</p>
	
<p>자원 지게놀이 기념비</p>	<p>자원 마을주민이 직접 만든 다리 구조물</p>
	
<p>자원 선학천의 모습</p>	<p>자원 서방백제대장군의 모습</p>

□ 자원 현황 및 활동 사진(4)



자원 선학리 근처 도로 교통



자원 선학리 입구에서 본 마을 풍경